

전일빌딩내 ‘5·18 헬기 총격’ 탄환 존재할까

국과수 “천장 슬라브·텍스 사이 주목…사용 총기류 판단 가능”

市 ‘헬기 기총소사’ 등 규명 위해 국과수에 추가 조사 의뢰키로

헬기 사격 37년만에 공식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총격 가능성을 37년 만에 공식화<광주일보 1월 13일자 1·3면>함에 따라 건물 안에 남아 있을지 모를 탄환의 존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과수는 지난 12일 밝힌 전일빌딩 총탄 흔적 현장 조사 감정서에 헬기 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사실상 단정 지었다. 다만, 직군을 상대로 무자비한 살상(殺戮)작전 시 사용되는 기총소사(機銃掃射)인지, 헬기에 탑재한 소총병에 의한 사격인지에 대

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따라서 건물 안에서 당시의 탄환이 발견된다면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해 어떤 총기로 시민들에게 사격을 가했는지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탄환의 존재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과수는 감정서에 “전일 방송 10층 내부 공간에서 식별되는 탄도로 보아서는 일부 탄환이 천장 슬라브와 텍스 사이 공간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천장 부분 발굴에서 탄환이 발견된다면 사용 총기류에 대한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혔다. 이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일빌딩 10층 내부 어딘가에 5·18 당시 헬기에서 쏜 탄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과수는 또 탄환이 발견된다면 사용 총기류도 밝힐 수 있고, 헬기 총격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탄환 존재가 주목되는 점은 국과수가 탄환 조사결과 기총소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시 헬기 기총소사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는 의미도 크기 때문이다.

헬기에 설치된 M 60 기관총 등으로 무차별 난사한 기총소사였다면, 당시 계엄군이 민주화 시위에 나섰던 시민을 사실상(儼)으로 규정하고 살상을 위한 작전을 펼쳤다는 점을 밝힐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탄환을 찾는 추가 조사를 국과수에

의뢰할 방침이다.

국과수도 추가 조사를 위해 전일빌딩 공간에 대한 보존방안 수립 후 탄환 발굴 조사에 의한 원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정지권과 5월 단계도 추가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5월 세 단계(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정부와 군 당국의 자위권 발동 주장이 37년 만에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미흡한 진술규명에 대해서는 기록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촉구했고,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정부는 무자비한 대량살상이 가능한 헬기총격 가능성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길·김형호 기자 cki@kwangju.co.kr



덴마크와 스웨덴 교민 20여명이 지난 14일 오후(현지시간) 정유라씨가 구금돼 있는 올보르 교도소 앞에서 정씨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를 이틀째 벌이고 있다.

“한국민은 감동…같이 감시다”

리퍼트 주한 美대사 눈물의 송별기자회견

“美대사 36년만의 전남대 방문 소중한 기억”

“한국민 여러분 모두 저희에게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보고, 귀감을 얻기 위함으로 자주 돌아오겠습니다. 같이 감시다.”

2년 3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 이임하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3일 오후 송별 기자회견을 갖고 진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정동 미국 대사관저 안의 기자회견장에서 리퍼트 대사는 먼저 20분 가량 준비한 원고를 읽어나갔다. 리퍼트 대사는 발표와 문답을 포함해 모두 한 시간

동안 이어진 회견에서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릴 때마다 모두 5~6차례 울먹였다.

그는 “많은 한국 국민으로부터 환대를 받았고 좋은 추억이 많다”며 한국어 공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방문, 수영으로 한강 도강, 한국 프로야구 경기 관람, 대구 치맥 페스티벌 참석 등을 떠올렸다.

특히 리퍼트 대사는 지난 2015년 3월 5일 서울의 한 강연회에서 흥기 피습을 당했지만 의연한 자세로 한미 동맹강화에 힘써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와함께 미국 대사로는 36년 만의 전남대 방문 등을 소중한 기억으로 꼽았다. 그



는 지난 2014년 10월 취임이후 광주를 3번이나 찾았다. 역대 주한 미국대사가 이처럼 광주를 자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7월3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고, 광주 수피아여고를 방문해 학생들과의 대화를 가졌다.

또 2016년에는 전남대 특강 등을 위해 광주를 찾아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 5·18 기념재단을 방문, 미국 정부의 5·18 기록물 제공에 대한 요청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향후 기록물 공개도 주목되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이임 직전 다시 광주를 찾을 계획이다. /최원길기자 cki@·연합뉴스

최순실 오늘 탄핵 심판 심리 출석

현재, 탄핵 심판 속도

증인 추가 신청 잇따라

국정농단의 주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출석해 증언하기로 했다. 최씨의 형사사건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14일 “최씨가 월요일(16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소환됐던 최씨는 증인 신문 하루 전인 9일 오전 최씨 본인과 딸 정유라씨가 형사소추를 받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현재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는 16일 오전 10시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오후 2시부터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불러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이와함께 17일과 19일에는 유진룡, 이

승철, 고영태, 류상영 증인 그리고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출석하는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일부 증인들이 안 나오면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심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양측 대리인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이들 증인을 받아들이릴 경우 추가 기일을 지정해 심리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19일까지 기일이 지정된 만큼 추가로 이뤄지는 증인신문은 23일 이후로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및 관련자들을 겨냥한 특별검사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가 기존 검찰 수사기록이나 법원 재판, 특검 수사와는 독립적으로 여러 증인을 통해 심리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해 증인신문이 중요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종환 변호사는 15일 “이종욱 KDD코퍼레이션 대표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특검 파상공세…박 대통령, 추가 간담회?

“현재 출석 않고 장외 여론전” 비난에 靑 “정해진것 없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속도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15일 박 대통령의 추가 입장 표명과 관련, “아직 어떻게 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설

전에 하려면 다음 주 중에는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설 연휴 전 마지막 주말인 22일께 기자회견단 또는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직접 추가 해명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직무정지 상태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도움을 받아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하려면 휴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아예 접거나 설 연휴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15일 박 대통령의 추가 입장 표명과 관련, “아직 어떻게 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설 전에 하려면 다음 주 중에는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설 연휴 전 마지막 주말인 22일께 기자회견단 또는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직접 추가 해명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직무정지 상태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도움을 받아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하려면 휴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진도군의회 “유치장만 가도 의정비 중단”

진도군의회는 올해부터 소속 군의원 이 각종 범죄 등으로 유치장에만 들어가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15일 진도군의회에 따르면 군의원이 범죄 등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구금 상태가 되면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군의회는 지난 12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전체 7명의 의원의 공동 발의한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진도군의회는 지난해 청탁금지법에 준하는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하기도 했다.

김인정 진도군의회 의장은 “의정비 지급제한 조례 개정은 전남에서 진도군의회가 처음”이라며 “청렴 의회 만들기

에 어느 지역보다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용지분양(입주신청) 공고

1 대상지 위치

전라북도 경음시 용산동 · 신정동 일원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내

2 분양물건

가. 중대형시설 용지(적격사상 입찰)

구 분	분양면적(㎡)	예정단가 (원/㎡)	객실수	비고
하이랜드호텔	24,889.5	191,000	150실	원형지
엘리시움빌라 1	11,736.9	160,000	30실	원형지
엘리시움빌라 2	39,666.9	183,000	90실	일부원형지
리조트홀	12,082.3	217,000	120실	
스파파크(콘도)	10,272.3	217,000	150실	일괄신청권장
스파파크(운동요하)	11,911.5	230,500		
전통문화의집(상가)	8,293.8	146,500		일부 원형지

※ 분양물건 세부내역 및 예정가격 등은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 (<http://kto.visitkorea.or.kr>) 공고 · 공모란의 공고내용 참조

나. 소형시설 용지(온비드 입찰)

	구 분	분양면적(㎡)	예정단가 (원/㎡)	비고
여관	메이들빌리지1	11,399.8	191,500~235,500	분할공급
	레인보우펜션	3,138.1	158,500~181,000	분할공급
	F&C Mall	15,868.9	251,000~278,000	분할공급
상가	수변상가 8	732.5	224,500	
	일반상가 12	1,954.8	262,000	

※ 분할공급 물건은 분할된 각 물건별 단가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세부내역 및 예정가격 등은 온비드 사이트 (<http://www.onbid.co.kr>) 공고내용 참조

3 입주신청자격

관광지내 적합한 관광시설을 건설, 운영 할 능력이 있는 자

4 입주신청안내

가. 중대형시설용지(호텔, 콘도미니엄 등)

- 입주신청방법 : 방문접수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번지 한국관광공사 관광투자지원원)
- 입주신청마감 : 2017년 3월 30일(목), 15:00
- 신청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재원조달계획 포함) 등

나. 소형시설용지(여관, 펜션, 상가)

- 입주신청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입찰 (온비드 사이트 주소 : <http://www.onbid.co.kr>)
- 입주신청(입찰) 기간 : 2017년 4월 10일(월) ~ 4월 20일(목), 16:00

다. 문의 · 안내

- Tel) 033-738-3465, 3466 Fax) 033-738-3887
- ※ ‘온비드’ 이용 관련 사항 : 온비드 고객센터(☎1588-5321)

5 입주가 선정

가. 대형시설용지(호텔, 콘도미니엄 등) :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에 의함

나. 중소형시설용지(여관, 펜션, 상가) : 가격경쟁입찰에 의함

6 입주가 혜택

전북도 및 경음시 조례, 관광진흥법(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특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혜택 가능

7 기타사항

대형시설용지 분양 신청시 중소형시설 용지를 포함한 다수용지 일괄 신청 가능

※ 세부사항은 공사 홈페이지(<http://kto.visitkorea.or.kr>) 공고 · 공모란 및 온비드 사이트 (<http://www.onbid.co.kr>)에 게시된 공고문, 입주신청유 의서, 입주가 준수사항, 토지이용계획도 등(붙임 자료 포함)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2017.1.13

한국관광공사 사장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공고 제 2017-1호

한국전력공사 “KEPCO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국전력공사와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이 주관기관으로 운영하는 “KEPCO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 기업을 모집합니다.

2017. 1. 16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목 적	“KEPCO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통해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업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역량 및 네트워크를 활용,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
지원대상	에너지산업 분야 업력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지원분야	전력 에너지분야(에너지 신산업 중심) - IoT, 에너지 빅데이터, EMS, EV, ESS 등
지원규모	기업별 2년간 2억원 한도(연간 1억원), 10개사 내외
지원내용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 홈페이지 참조
사업기간	2017년 1월 ~ 2017년 12월(선정 후 12개월)
신청기간	2016. 12. 21(수) ~ 2017. 1. 31(화)
모집공고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www.kepco.co.kr/jungso)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koema.or.kr)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홈페이지(www.evedi.or.kr)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 접수방법 : www.k-startup.go.kr → “사업공고” 내 신청접수
문 의 처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한국전기산업진흥회) Tel : 061-336-8711, 8713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